

목포 외달도, 2023년 '가고 싶은 섬' 공모사업 선정

내년부터 총사업비 50억 중 도비 25억 5년간 5억씩 지원 콘텐츠 발굴 경관 개선·해수욕장 낙조정원 조성 등 추진

목포시 외달도가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가고 싶은 섬'은 도내 유인도를 대상으로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매력적인 섬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중 도비 25억원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5억원씩 지원받는다.

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지난 10월 외달도 고유 생태자원, 매력적인 섬 문화, 사업의 적합 실현가능성, 타사업과의 연계성, 주민참여 및 시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외달도는 주민의 열정과 시의 강력한 추진의지 등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외달도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콘텐츠를 발굴해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외달도 해수욕장 낙조정원 조성, 보행연도교 입구 전망쉼터 조성, 마을회관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 주민역량 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생활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외달도 주민 김영기씨는 "주민이 살고 싶은 섬, 관광객이 즐거운 섬을 우리가 만든다는 의지로 모든 주민들이 참여했고, 사업에 선정돼 뜻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섬 주민들의 열정과 관심, 참

로 선정됐다. 시는 외달도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콘텐츠를 발굴해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외달도 해수욕장 낙조정원 조성, 보행연도교 입구 전망쉼터 조성, 마을회관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 주민역량 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생활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외달도 주민 김영기씨는 "주민이 살고 싶은 섬, 관광객이 즐거운 섬을 우리가 만든다는 의지로 모든 주민들이 참여했고, 사업에 선정돼 뜻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섬 주민들의 열정과 관심, 참



여가 선정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면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여러 공모사업들을 통해 고유자원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아름답고 활기찬 명소로 섬을 조성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2022 무안 관광사진 공모전 내일까지 접수...총 31점 작품 선정

무안군이 오는 11일까지 2022 무안 관광사진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 마케팅과 군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실시했다.

공모전의 주제는 무안을 홍보할 수 있는 생태·자연경관, 역사·문화·기반시설 등 참신하고 매력적인 관광사진이며, 사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촬영되고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연령과 지역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자는 11×14인치 인화사진으로 1인이 5점 이내 출품할 수 있으며, 무안군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으로 신청서, 서약서, 출품표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12월 초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상(1점) 150만원, 은상(2점) 70만원, 동상(5점) 50만원, 가작(23점) 20만원 등 총 31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안=이성기기자

함평군 오손도손할미손공동체,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우수상'



30가구 50여 명 주민 거주
립그리기·도자기 만들기 등

함평군 나산면 마산마을 오손도손할미손공동체가 '2022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전남마을 이야기 꽃, 마을공동체로 피어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시상식이 개최됐다.

함평=김광춘기자



제3회 영암군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 성료...900명 참여

영암군 농촌지도자회는 8일 영암군민회관에서 제3회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를 회원, 군 관계자, 사회단체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바쁜 농사일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함께 연습한 아리랑 난타팀 회원들의 난타공연이 시전행사로 흥을 돋웠고, 개회식에서는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자회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성구 영암읍 회장과 김갑임 군서면 여부회장이 중앙연합회장 표창을, 최병철 서호면 회장과 박순란 삼호읍 여부회장이 전라남도연합회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농촌지도자회는 우애·봉사·창조의 농촌지도자 정신으로 저탄소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이번 한마음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3년 만에 개최되었다.

회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오랜만에 농촌지도자 회원들간 서로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열려 기쁘다."는 뜻을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 군민 가계부담 경감 '톡톡'

3년 연속 공모 선정... 전 지역 대상 고도화사업 추진

영광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상가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정부의 탄소중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3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해 1차 사업으로 영광읍, 군서면 등 2개 읍면 458개소(45억 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백수읍, 흥농읍, 범성면, 영광읍, 군서면 등 5개 읍면 457개소(45억 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3차 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3월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사업비 37억 원(국비 16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설치한 주민들은 3kW 주택의 경우 월 4~5만 원의 전기요금에 월 1~2만 원으로 대폭 절감돼 냉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융복합사업을 통한 영광군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로는 1.895TOE(석유 1t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환산한 단위)로 이산화탄소 3.802톤을 절감하는 등 연간 42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광군은 2023년까지 3차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사업만족도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4년에는 영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건축물 대장이 없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건축물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주택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2024년 고도화사업 참여 희망자를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가계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민선 8기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실현과 청정에너지 부자도시 영광 건설에 친환경 에너지산업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